

외국인투자기업 CEO 주최 만찬연설

존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여러분,

주한 외교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회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욱 분발해 달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서 말씀이 있었듯이 외국인투자 누계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로 우리는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과 수출을 늘리고, 경제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제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투자자 여러분,

저와 우리 정부는 말로만 감사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야말로 혁신주도형 경제를 가속화하는 촉매

체로서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인 임직원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과세체계도 단순화했습니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1:1 밀착지원을 위해서 '인베스트 코리아'가 출범했고, 인천·부산·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151개에 이르는 투자환경 개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인천공항 전용심사대 설치, 가사보조인에 대한 장기비자 부여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한남동 외국인학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적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다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장기불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 GDP 성장률이 5.4%를 기록했습니다. 수출도 세계 열두번째로 연간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경제가 조정기를 겪고 있지만 대기업의 높은 수익률과 건전한 은행 시스템 등으로 여전히 기초가 좋은 상태이며, 내년 초부터는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00년 이래 줄어들던 외국인투자도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유가와 내수부진, 환율인하와 같은 단기적 불안요인도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밝힌 '종합투자계획'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내년에도 5%대 성장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현재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과 원칙은 단호하게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LG칼텍스정유 등의 분규 해결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지켰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분규 발생건수는 아직 많지만 대부분 원만히 해결돼서 근로손실일수가 9월 말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7.3% 감소했습니다. 노사관계는 앞으로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인베스트 코리아'에 전담반을 설치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노동계도 외국인투자유치단에 동참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계 어느 곳의 분쟁지역보다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남북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안보 위험이 줄어들어 보다 안정된 투자환경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외국인투자자 여러분,

한국은 건실한 제조업 기반과 IT·물류 인프라,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디지털 제품의 시험장으로서 높은 시장성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한가운데에 있는 전략적 입지도 매력적입니다. 여기에 외국인투자자의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 자본이 합해지면 세계 어느 곳보다 높은 투자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정책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학·연 협력과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만큼은 확실히 육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은 근절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경제 전 분야에 글로벌 스탠더드가 도입되고, 실력 있는 기업은 반드시 성공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규제문제도 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풀겠습니다. 지금 8,700여개 규제를 하나하나 재검토해서 내용이 모호한 규제는 명확하게 고치고,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대폭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FTA 체결을 비롯한 시장개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한 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확실한 투자유치 전략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보고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여러분의 사업도 성공하고 한국 경제도 발전시켜 나갑시다. 다시 한번 초청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